

남해군 특산물과 국내 대표 외식기업 CJ가 만나면?

남해군-국내 대표 먹거리 프랜차이즈 CJ푸드빌, 30일 상생발전 협약 체결|| 빙스'남해마을 밀키트 3종'·뚜레쥬르'남해마을빵 2종'도 출시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입력 : 2022-08-31 13:54:44



경남 남해군과 CJ푸드빌이 30일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군 제공

고품질 농·수축 특산물을 생산하는 경남 남해군과 우리나라 대표적 외식기업이 상생 발전협약을 맺고 공동발전을 꾀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과 CJ푸드빌은 30일 남해군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충남 군수와 김찬호 CJ푸드빌 대표를 비롯해 변희성 CJ푸드빌 외식본부장, 이치형 베이커리본부장 등 CJ푸드빌 관계자, 최재석 남해군농어업회의소 회장, 차용선 농협 남해군지부장,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협약은 CJ푸드빌이 남해군 특산물을 자사 먹거리 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고,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포함한 남해군 관광·문화 자원 전반의 홍보에도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상생을 위한 첫 걸음으로 CJ푸드빌의 대표 외식브랜드인 빙스(MPS)가 남해마을을 활용한 밀키트 제품을 출시, 오는 10월 남해 독일마을에서 열릴 독일맥주축제 기간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CJ푸드빌은 남해군의 저명 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공식 후원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뚜레쥬르도 남해마을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등 남해마을 홍보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CJ푸드빌은 남해마을을 시작으로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와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CJ푸드빌 측은 자사가 운영 중인 서울 남산의 'N서울타워' 전망대에 남해군 홍보관을 개설,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비롯한 남해군 관광자원, 대표 특산물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편다.

김찬호 CJ푸드빌 대표는 "남해군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통한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단순 식재료 수급과 제품화를 넘어 민관협력의 좋은 상생모델로서 농가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국내 대표 먹거리 프랜차이즈인 CJ푸드빌의 탄탄한 역량과 남해군의 협력은 남해 마늘과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으로 보물섬 남해군의 브랜드 파워도 높아지게 됐다"고 화답했다.
